그 사람 지금은

(2) 손수익 前 교통부장관

"요즘 장관들 단명…책임행정 할 수 있겠나"

'문림의향(文林義鄕)' 장흥에는 전직 장관과 주민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고향사랑 모임과 '조찬강연회'가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애장회(愛長會)와 장흥학당이 그 것이다.

학당의 당주(堂主)는 교통부 장관을 지낸 손수익(74)씨다.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선친이 물려준 미곡종합처리장(장흥물산)도 돌볼 겸 고향을 자주 찾다가 1993년 1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흥 사랑 모임'인 애장회를 만들었다. 이듬해 11월에는 사단법인 장흥학당을 개설했다.

"지역민들에게 연찬과 면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활력있는 장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학당은 어느덧 271회를 마쳤으며 회원은 311명으로 늘어났다. 수강생도 농민과 의사, 사업가, 지방의원, 회사원 등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

전직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초기에는 '선거용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학당 운영에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해온 결과 오해는 절로 풀렸다.

그런 손 당주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내버려둘 리가 없다. 하지만 숱한 매체의 줄기찬 인터뷰 요청에도 그는 흔들림이

70년대 새마을운동·녹화사업 핵심

100만정보 나무심기 6년만에 완료

없었다. 지난 1일 찾아간 취재팀에게도 "이왕 오셨으니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라"면서 손사래부터 쳤다. "시대의 한 모퉁이를 보고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자기변명에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게 좋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형형한 눈빛과 안색, 걸걸한 목소리는 70대임을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짖궂게 물고 늘어지는 아들 또래 기자의 간청까지 물리칠 정도로 매몰차지는 못했다. 30여년간 관료로 봉직했던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고등고시(1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9세에 나주군수를 시작으로 내무부 기획관, 전북·전남부지사, 내무부 지방국장, 경기지사, 산림청장, 충남지사, 내무부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거쳤다.

특히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에는 최전방 실무 지휘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69년 말 전남부지사로 내려간 지 두 달여만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청와대에 파견 근무 형식으로 불러 제2 지방행정담당비서관직을 덜컥 맡기더라고요. '국방장관과 공보장관에게 얘기해서 헬기 2대와 사진과 직원 2명을 차출해 한 쪽은 국토의 동부, 한 쪽은 서부를 돌아 경지정리나 사방사업, 지붕개량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을 모두 찍어오라'는 게 내게 내려진 첫 임무였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후일 내무부 장관을 지낸 김종호 당시 서기관과 함께 500여장의 스틸 사진을 찍어 이 가운데 150여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사 내용이 마음에 들었는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월간 경제동향보고 회의에서 잇따라 보고하도록 했는 데 아마 이 때부터 새마을운동의 밑그림을 그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 후 박 대통령은 '임자가 만든 것이니 직접 궤도에 올려놓으라'며 주무부서인 내무부 지방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이에 그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국 산하에 새마을부국을 둘 것과 시장·군수들을 발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새마을부국장에는 고 건 당시 전북도 내무국장이, 도시새마을과장에는 전석홍 영광군수가 발탁됐다.

손씨는 이후 세계 임정사에 큰 획을 그은 70년대 국토녹화 사업에 헌신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산림청장을 맡아

지난 1976년 4월 13일 전북 장수지역 조림지 시찰에 나선 손수익(가운데) 당시 산림청장이 '애림(愛林)은 애국(愛國)과 직결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6년 가까이 '산·산·산, 나무·나무·나무'를 외치며 대대적인 국민식수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손씨가 산림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봄, 가을에는 수시로 친필서한과 함께 판공비로 쓰라며 적지 않을 돈을 줬다. '일선의 산림직들이 목재업자한테 절대로 술 얻어 먹지 않도록 술도 좀 사주고 격려도 해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산림청장 재직 6년동안 500여시간 넘게 헬기를 타고 산야를 누비고 다녔다. 청장 재직기간이나 헬기탑승 시간은 지금도 최장 기록일 것이다. 덕분에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숫자상으로는' 4년이나 앞당겨 달성됐다. 1973년에 시작된 '100만정보 나무심기'가 6년만에 완료된 것이다.

고향장흥 내려와 '애장회' 등 개설

지역민들과 함께 '고향사랑' 앞장

'행정은 테크닉'이라는 손 당주는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 장관들의 재임 기간이 너무 짧은 점을 우려했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 2년 임기는 보장해줘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대와 인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흥학당은 민간 주도로 꾸려가는 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다. 운영비만해도 연간 4천만~5천만원이 든다. 서울 등지의 유명 강사들도 순전히 손 당주의 두터운 인맥 덕분에 대부분 '자원봉사'로 나선다. 하지만 관의 지원은 사절이다. 군에서도 예산 지원을 제의했으나 고사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주민 의식이 깨어야 한다'는 손 당주는 "리더가 선도하면 지역민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용태세가 돼 있다"며 지역언론에도 주민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의 아름다운 '귀거래사'는 오늘도 고집스럽게 계속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약 력

▲1932년 10월 21일 장흥 출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나주군수, 전남부지사
▲산림청장, 경기·충남지사
▲교통부장관
▲녹조근정훈장, 중화민국 경성훈장

■ 전라도 역사이야기

-탐진과 탐라

탐진, 고려때까지 제주가던 항구

탐라사신 신라 조공때 머물던 곳

전라도 풍수를 말할 때 물길이 사방으로 향하니 '산발(散髮)형'이라 한다. 그 해석은 긍정일 때 개방성, 부정일 때 분열성이다. 영산강과 섬진강 사이 탐진강은 전남 3대강이다. 탐진은 곧 바다로 이어져 제주(탐라)가는 지름길로 통했다.

탐진강은 장흥 유치면 세류리 기동마을 북서쪽 궁성산(484m) 범바웃골 성터샘에서 발원하여 강진읍 목리에 이른다(57㎞). 장흥구간에서는 '수령(遂寧)천', '예양(汭陽)강'이라 칭했다. 수령은 장흥의 옛 고을터의 이름이고, 예양은 장흥읍내에 있다. 상류에는 진발내(유치천)·옴내(옴천), 월출산 기슭에는 작천(금강)이란 이름도 있다.

강진에서는 '탐진강'이라 칭한다. 1417(태종17)년 도강(道康)과 탐진(耽津)을 합해 강진이 되었기 때문이다. 탐진현은 757(경덕왕16)년 동음(冬音)현을 개칭하면서 처음 사용한 지명이다. 본디 동음은 도무, 두무, 두름 즉 원산(圓山)을 의미한다. 탐라도 둥그런 뜻을 지니고, 한라산 역시 '큰 두름산(頭無岳)'으로 같은 뜻이다. 탐라와 탐진은 맥이 통하고 있다.

탐진현터는 강진 대구면 장어로 유명한 구십(구강)포 일대로 여겨진다. 이곳 지형을 보면 매우 깊숙한 만(灣)으로 요니형국이다. 앞 남해바다 즉 마량으로부터 강진읍 남포까지 50리나 들어와 자궁과 같다. 구십과 구강은 어귀(入口)을 뜻하며, 한자로 표기하면 '대구(大口)'가 된다.

1682년께 제작된 동여비고에 기록된 탐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구십포는 현의 남쪽 6리에 있다. 근원은 월출산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고을 서쪽 물과 합쳐 구십포가 된다. 탐라의 사신이 신라에 조공할 때 배를 여기에 머물게 했으므로 이름을 탐진이라 했다"고 기록돼 있다.

강진문헌연구회 양광식 회장의 증언을 따라가 본다.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이 옛 구십포요, 탐진이다. 이 동네 포구 동편 골짜기에 '앙(아흔)골(九十谷)'이란 땅이름이 남아 있다. 이 포구의 바로 서편에 가우도가 있다. 이곳이 일제가 하구로 정한 곳보다 12㎞ 하류 지점이다.

탐라는 13세기에 제주로 변했다. 제(濟)는 바다를 건너가는 섬의 뜻을 담고 있다. 고려 때까지 탐진은 제주가는 주요 항구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해남 관두량과 이진성,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목포 코스를 택하고 있다.

제주는 전라도에 속했다. 광복 이듬해 도로 승격 독립했고, 금년 7월에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진도문화원 김정호 원장이 1990년대 쓴 제주~서울간 호남대로 현장답사에 추자도 박석현씨의 제보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목포가 제주보다 배나 먼 거리(추자~제주 28마일, 추자~목포 58마일)지만, 목포가 가깝게 느껴지지 제주는 훨씬 먼 곳으로 생각되고 별로 갈일도 없다. 하지만 추자가 제주도로 속하지 않았다면 큰 일 날 뻔했다. 보길과 노화도를 자주 가보지만 우리 추자도에 비기면 개발이 안 되었다. 추자가 제주도에 속한 것이 천만 다행이다." 탐진(전라도)과 탐라(제주도)가 갈렸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